

# 이국종 교수 '닥터헬기' 이르면 내일부터 운행 재개

### 경기도 "주말 예정이었으나 야간운행 불허 연기" 닥터헬기, 사천서 점검 뒤 수원으로 이동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용 '닥터헬기'의 운행 재개가 당초 예정된 시기보다 하루 이틀 더 뒤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닥터헬기가 오는 20일 야간 훈련비행 후 운행 전반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21일 오전부터 정식으로 운행을 재개한다고 18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20일부터 임무비행이 정식 개시된다고 앞서 밝혔지만 이날 운행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계획된 운행재개 시점에서 변경됐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남부권외상센터에서 운영될 닥터헬기는 최근까지 경남 사천비행장에서 모든 점검을 마치고 현재 수원비행장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3일부터 이국종 경기남부권외상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국종 교수를 향한 유희석 아주대의료원장의 욕설 파문 사건으로 불화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이번 닥터헬기 운영은 크게 이목이 집중된다.

닥터헬기 운영과 관련 이 교수와 병원 측이 그동안 마찰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31일 독도 해상에서

야간 시간대 발생한 추락사건과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동양기종은 안전관리 차원에서 운항을 모두 중단 조치했다.

때문에 중앙119구조단에서 사용되는 EC225헬기는 외상센터에서 운영하는 닥터헬기 기종과 같아 지난해 11월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운항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도의 자체점검과 국토부의 특별점검을 통해 지난 16~17일 수원비행장에서 주·야간 훈련비행과 이·착륙 훈련 등을 진행했다.

도는 닥터헬기가 소방시스템과 연계·운영되도록 18일 도 소방재난본부 소속 특수대응단 6명을 외상센터로 파견했다.

닥터헬기는 구조가 필요한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전문의료진이 함께 탑승해 이송 중에도 개호술, 대동맥 차단 등 응급수술이 가능하다.

한편 유 원장의 욕설 파문 사건은 지난 13일 이 교수를 겨냥한 유 원장의 '욕설 녹취록'이 공개되면

서 발단이 됐다. 해당 녹취록은 4~5년 전의 것으로 확인됐다.

녹취록 공개로 이 교수와 유 원장과 불화의 조짐은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우나 갈등의 정점은 지난해 10월18일 경기도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교수가

아주대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국정감사에서 "헬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제기된다는 빌미로 '사입반납'까지 병원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주대병원 측은 "특히 지난해 8월 말에서 9월 초 조중 사들의 이·착륙 훈련 등 헬기의 운영회수 빈도가 잦았는데 이에 대한 소음민원이 환자들로부터 지속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때 9월 9일 열린 소방관련 회의 자리에서 병원 측에서 '민원이 지속되는데 답을 해야 한다. 신경써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것 뿐이지 별다른 의미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뉴스1



제주 휴애리 동백축제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휴애리자연생태휴양원에서 관광객들이 활짝 핀 동백꽃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기다리지 말자' 송파구, '여권발급 번호표' 온라인 발행

서울 송파구는 20일부터 송파구 홈페이지를 통해 여권발급 대기자 수를 확인하고 여권발급 온라인 번호표를 뽑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송파구는 인구가 많고 교통이 편리해 서울시 자치구 중 여권발급 건수가 1, 2위를 다투 정도로 많다. 특히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이 급증하는 12~2월에는 여권발급 양이 크게 늘어 최대 2시간까지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도 하다.

이에 송파구는 '여권발급 번호표 온라인 발행 서비스'를 개발했다. 일부 은행들에서 온라인 번호

표를 발행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에서는 최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접속한 송파구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여권발급을 위해 대기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 수 있으며 온라인 번호표를 발행 받을 수 있다. 온라인 번호표를 발행하면 등록된 휴대폰의 문자로도 접수번호 등의 번호표 내용이 자동 전송된다.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접수번호와 자신 앞에 대기자 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자신의 여권발급민원이 처리될 시간을 가늠할 수 있다.

송파구는 이 서비스 시행으로 여권발급을 위해 구청에서 오랜 시간 대기해야만 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송파구 홈페이지를 통해 여권발급 대기현황을 확인한 주민들은 사람이 붐비는 시간을 피해 구청방문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여권발급 온라인 번호표를 뽑는 경우에는 다른 업무를 보거나 주변시설을 활용하며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구청을 방문해 현장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1

## 강원도 출생아 수 지난해 증가 추세로 '반등'

### 도 "육아기본수당 월 50만원으로 증액 검토할 것"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였던 강원도 내 출생아수가 지난해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강원도는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및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강원도와 세종시만 유일하게 출생아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도내 출생아수는 8370명으로 2018년 대비 19% 소폭 증가했다. 반면 충북지역은 1239명이 줄면서 2018년도 대비 감소율(11.7%) 폭이 가장 컸다.

도는 출생아수 증가 주요인으로

육아기본수당 지원, 산후건강관리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등 출산장려 정책과 일자리 활성화 사업, 평창동계올림픽 연계 사업 등을 꼽았다.

특히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된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도는 올해 사업효과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의회의와 의논을 거쳐 현행 월 30만원 지급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육아기본수당은 2019년 이후 도내 출생아 모두에게 소득에 상관

없이 4년간 144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그동안 강원도는 심각한 인구절벽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지자체 중 하나로 꼽혀왔다.

지난 2015년부터 도내 출생아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감소율은 10%에 육박했다.

고정배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소폭 증가했지만 감소 추세에서 증가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 판단한다"며 "오는 2월 지난해 시행했던 육아기본수당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연구를 착수,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1



## 대구 남부도서관, '중국 명절' 도서전

대구시립남부도서관은 이달부터 매월 중국문화정보실에서 '테마별 중국 도서전'을 연다.

남부도서관은 오는 31일까지 '중국의 명절 풍습'을 주제로 첫 전시회를 열고 중국 춘절(24~30일)을 맞아 현지의 다양한 명절 풍습을 담은 책을 소개한다.

배호기 관장은 "중국에 특화된 정보를 제공해 주민들의 중국 이해도를 높여려는 것"이라고 했다.

## 장수군, 빈집정비사업 추진 대상자 모집

전북 장수군은 2월14일까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촌 빈집정비는 낡은 농촌 빈집의 철거로 환경보전, 농촌지역의 경관개선을 위한 것으로 빈집 철거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아니한 건축물로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 가능하다.

장수군은 올해 지난해 보다 2000만원원 늘어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빈집정비 40동, 농촌 비주거용 빈집 15동, 면밀히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지붕 유형과 면적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되며, 자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다.

## 정읍시 수성동 '도심 야간경관 밝혔다'

전북 정읍시가 춥고 어두운 도시심을 환하게 밝히고 도심 활력을 찾기 위해 나섰다.

시는 나무의 생육환경을 고려해 나무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동그란 모양의 조형물에 LED 조명을 감아 나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했다.

특히 주민들은 2.5m의 곱 조형



물 앞에 멈춰 사진을 찍는 등 큰 호응을 보였다.

## 경인여자대학교 졸업생 취업률 5년 연속 상승 이유는...



경인여자대학교 졸업생 취업률이 5년 연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인여자대학교에 따르면 경인여대 취업률은 2014년 67.5%에서 2018년에는 71%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인여대측은 취업률 상승 원인이 '경인인증제'로 인한 효과

로 보고 있다.

경인인증제는 △사회봉사활동(20시간) △관장도서(20권) 필독 후 감상문 △멘토특강(4회) 참석 △외국어 강좌(40시간 이상)를 이수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받은 학생은 최대 40만 원까지 장학금을 혜택도 받는다.

경인여대는 또 대학입학부터 졸업까지 학생 이력을 지도교수가 밀착관리하는 '학생이력관리 시스템' 도입과 함께 자격증특강,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채용설명회 개최 등 취업에 필요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취업률을 높이는 데 노력했다.

류화선 총장은 "경인여대는 꿈을 가지고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 전공역량강화뿐만 아니라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성, 자기관리, 소통, 협력, 창의, 글로벌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다"며 "많은 학생들에게 참고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학교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경인여대는 각종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뉴스1

## 부산 기장군 특산물 '다시마' 일본 판로 개척...21톤 수출

### 첫 수출에 20만 달러 성과

부산 기장군 특산물인 기장다시마가 일본 수출 판로를 개척했다.

기장군은 '기장다시마' 21톤을 일본에 수출해 20만 달러의 수출고를 올렸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기장지역과는 다르게 기장다시마의 경우 일본 바이어가 요구하는 규격 등이 국내와 달라 일본 수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기장군 대변항의 한 어업인이 기계식 건조시설을 도입해 생산한 끝에 일본 수출에 성공했다.

이 어업인은 일본이 요구하는 다시마 규격을 맞추기 위해 10년여 가까운 시간을 들여 건조시설을 개발해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장다시마 산업은 현재 건조부



지 부족 등으로 자연건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계식 건조시설을 이용하면 3시간여 만에 건조작업을 끝낼 수 있다.

항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며 상품성 높은 기장다시마 생산이 꾸준히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바이어들도 이번에 수출된 기장다시마를 일본의 하코다테 다시마와 같은 최상급 품질이라고 호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서는 홋카이도의 하코다테와 '미시리섬(利尻島)'에서 생산되는 다시마를 최상급으로 평가한다.

군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다시마의 종류와 품질뿐만 아니라 외형적 규격도 굉장히 까다롭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수출을 계기로 기장 다시마 수출량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1